

# 이론)아나키즘은 무엇을 주장할까?

심장중의강철

주의:여기서 말하는 아나키즘은 막스 슈티르너 부류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 아닌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아나코 코뮤니즘,생디칼리즘)을 다루니 혼동 안하길 바랍니다.



아나키스트들의 상징과도 같은 흑적기

제목처럼 아나키즘이 뭘 주장할까? 라는 글을 써볼꺼야. 그러기 위해선 아나키즘을 '간단하게'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부정하는 체제야. 엄밀히는 '강압적인 권위'를 부정하지. 이들은 그래서 '국가'를 해체하길 원해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은 '사회'의 붕괴를 바라지 않지 그렇기에 아나키스트들은 이 '국가'라는 '거대한 체계'가 사라진 이후에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여러가지 말들을 나뉘어 오늘은 그 논쟁들과 함께 이들이 어떤 '사회'를 구상했는지 알아볼까 해

## 초기 아나코 집단주의(바쿠닌)과



초기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였던 바쿠닌은 강력한 무신론자-사회주의자-반국가주의자였어 그래서지 제 1차 인터내셔널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주장 하던 맑스를 비판하며 '그런 체제를 근본적으로 독재국가로 흘러간다'라고 했다가 맑스가 네차예프건으로 바쿠닌을 엮어버려서 꼬우면 처나가라 해서 꼬워서 처나간다. 해버렸지

암튼 바쿠닌의 사상을 알아보자면 그는 '아나코 집단주의'주장자였어 그리고 그런 한 편으로는 허무주의한테도 영향을 크게 주기도 했었지 바쿠닌의 사상의 '핵심'을 크게 정리하자면

개인 해방의 주체는 개인이다.

인간의 자유는 신성함, 인간, 집단 혹은 개인 같은 어떠한 외부적 힘이 그에게 강요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 자신이 스스로를 인식한 자연적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하늘에 신이 있다면 지상에 인간은 노예가 될 뿐이다.

-신과 국가

바쿠닌은 일단 아나키즘에서 흔히 말해지는 '자유'를 얻는 '해방'의 과정을 '국가'나 '전위조직'같은 것이 아닌 '자기 자신 개인 스스로'라고 규정했어(그렇기에 그는 확실한 무신론자였고 신이 만악에 존재한다면 인간은 그를 죽여야한다고까지 주장했지) 누가 강요하거나 이끌어서 자유민이 되는게 아니라 자기자신이 직접 '투쟁'하여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주장했지 그런 점에서 그는 '파괴의 열정은 곧 창조의 열정'(후에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에서 비슷하게 인용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어 이는 허무주의는 물론 아나키즘에서도 크나큰 영감을 줬지

## 국가는 반동이다.

혁명적 독재와 국가주의의 차이는 피상적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그 둘은 소수의 '지성'과 다수의 '어리석음'을 가정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라는 동일한 원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 둘은 머지않아 지배하는 소수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과 대다수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종속을 지속시키고 영구적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반동적이다.

### -신과 국가

그의 핵심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야. 그는 국가를 '반동'이라고 묘사했고 마르크스와 같은 '혁명적 독재'를 주장하던 이들도 똑같은 반동이라 주장했어

국가란 기본적으로 '억압과 착취의 끝판왕'이자 그 것을 만들어내는 주체'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혁명가'들이 되었다 한들 그들은 자본주의적 정부에만 대적할 뿐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나면 또다시 억압적인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지

한번 되물어보자. 프롤레타리아가 지배 계급이 된다면,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게 되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지배에 굴복해야 하는 또 다른 프롤레타리아가 남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공화국에서는 자신이 민중의 의지라고 주장하는 국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짜 민중을 계속해서 억압한다. 그러나사람들이 몽둥이로 맞고 있을 때, 그 몽둥이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행복해 하진 않을 것이다.

### -신과 국가

그가 위에서 말한 '개인해방의 주체는 개인이다.'와 비슷해 말 그대로 '전위조직'이나 '국가적 존재'의 의한 해방은 다시말해서 결국 그들의 이상에 따른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지배와 새로운 정부에 굴복당하고 다시 억압당할 인민을 창조하는 것 밖에 안됐거든 그렇기에 그는 국가의 해체를 열렬하게 주장했어 '진정한 해방'을 위해 주장했던 두가지(국가의 해체와 사회주의)중 하나였을 정도였지

## 억압적 권위의 폐지. 자유로운 '합의'의 탄생

결과적으로, 인민대중의 정치적/사회적 해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국가의 파괴, 또는 해소를 추구한다. 우리는 국가를 그 종교적 · 정치적 · 행정적 · 교육적 · 법적 · 재정적 · 군사적 · 관료적 기구와 함께 급진적으로 근절하기를 추구한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차르 아래에서 모든 자유가 부서지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인과 비러시아인 모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인민에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스스로 원하는 바와 필요와 의지에 따라 자신을 통제할 절대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로써 모든 인민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상향식으로 연방을 구성할 때, 그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 바라본다. 그리고 그 사회는 동일한 원칙에 기반한 유사한 집단들과 연방적으로 단결하여 자유롭게 유럽을, 전 세계를 조직할 것이다.

### -우리의 강령

아나키즘의 핵심 논제야. '합의'지. 아나키즘은 알다싶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지 않아. 대신 인민들이 모두 토론하고 직접투표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를 긍정하지 그 밖에도 '자연적 권위'(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선생님이 교수를 하여 나한테 지식을 알려주는 건 자연적 권위야. 이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어

여기서 '합의'의 대해서 알아보자. '합의'와 '국가의 법'의 근본적 차이점은 국가의 법은 결국 근본적으로 '소수 엘리트 계층'(우리가 선거로 뽑았다한들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게 아니니까)이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드는 즉 '우리들 의사가 없는'그들만의 법정하기라고 비판했어. 그 반면 '합의'는 모든 인민이 직접민주제와 토론을 통해 자기 말을 내뱉칠 수 있는거지

하지만 이런 직접민주제는 너무 조직이 크면 발산이 힘들고 또 권위적이게 변할수 있어 그렇기에 바쿠닌은 '자유연합론적 연방제'를 주장했어. 한마디로 지방 각자마다 모두 '코뮌'행정으로 쪼갬 뒤 그 코뮌들이 '자유롭게 연합'하여 '비국가적 연방'을 만들자는 주장이었지 그럼 그 코뮌 내부에서의 일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기도 편할 것이고 강력한 국가체계가 없는 비국가 연방제기에 누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행할수도 없지. 바쿠닌을 이 것이 '국가의 해체의 대안'으로 여겼어 '자유'를 쟁취하는 올바른 대안이었지

## 자본주의는 억압이다.

“지금 전세계가 자랑스레 여기는 모든 재화를 생산하고서도 그 대가로 단지 조그만 빵조각 밖에 받지 못해 내일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려운 인구 대다수가, 사실상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휴식도 여가도 없는 노동, 그리고 가난 때문에 기본적 욕구를 박탈당하고 있는 한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품없는 노예상태로 운명 지어져 있는 한 자유, 정의, 평화의 엄중한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세기 동안 끔찍하게 학대를 받아온 사람들에게 빵의 문제는 정신적인 해방의 문제이고, 자유와 인간성의 문제라고 확신한다.”

“사회주의 없는 자유는 특권과 불의·불의·불의이며,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노예제이자 야만일 뿐이라고 확신한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연맹은 자본과 사유재산 소유자의 속박으로부터 인민의 노동을 해방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의 급진적 재건, 법률적 정의나 신학적, 형이상학적 정의가 아닌 인간 정의에 다름 아닌 엄격한 정의 그리고 실증과학과 광대한 자유에 근거하는 재건의 급진적 필요성을 소리 높여 선포한다.”

### -국가 없는 사회주의: 아나키즘

바쿠닌 사상의 마지막 핵심이야. '사회주의'지 바쿠닌은 사회주의가 없는 자유는 불의이자 특권이라며 주장했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어 모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수단을 가져가 공유하고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용을 위한 조직, 단체들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지 (노동의 대한 대가역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어)

초기 집산주의적 아나키즘은 노동자 협회등에서 크나큰 환호를 얻었어 하지만 제 1차 인터에서 바쿠닌이 쫓겨나고 맑시스트가 주류가 되고 또한 파리코원이 실패하는 등의 일이 겹치면서 집산주의적 아나키즘은 그 세가 조금 씩 줄어들었지 이때 중반부로 흘러가면서 크로포트킨등의 인물이 아나키즘을 이론적-생태학적으로 재정립해



대표적인 아나코 코뮤니스트(코뮤니스트). 크로포트킨(위), 에리코 말라테스타(아래)

바쿠닌은 후기로 갈수록 혁명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며 혁명활동에 손을 뗐어 이때 에고이스트적 아나키즘(막스 슈티르너부류)와 같은 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을 더욱 더 발전시킨 인물들이 나와 바로 표토르 크로포트킨과 에리코 말라테스타지. 이들은 아나코 코민주의(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정립하였고 이론에 대해 '생물학적'인 근거도 마련했어 물론 말라테스타와 크로포트킨조차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면들도 있었으니 한 번 살펴보자

## 임금노예제의 철폐

‘행복한 삶을 살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 ‘일할 권리’는 언제든 임금노예가 되고, 고달프고 단조롭게 일하며, 미래의 중산층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할 권리를 의미할 뿐이다. 행복한 삶을 살 권리는 ‘사회 혁명’을 의미하는 반면, 일할 권리는 상업주의와 관련된 단조롭고 고된 노동을 의미할 따름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이 공동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손에 넣기 위해 가장 알맞은 때이다.

### -빵의 쟁취(크로포트킨)

크로포트킨등의 코민주의자들과 바쿠닌 사상의 큰 핵심적 차이야. 바로 임금노예제의 철폐지 크로포트킨은 바쿠닌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에도 바쿠닌의 집산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며 임금노예제의 철폐를 요구했어. 자본적 사회에서는 '돈'을 받고 '먹고살기'위해서 '강제적으로 고된 노동'을 해야했어 그래야 하루먹고 하루벌었지. 크로포트킨은 '임금제도'자체를 비판하며 이러한 제도를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는 절실하게 '필요에 따른 분배와 능력에 따른 노동'을 주장했어 그는 정말 철저했던 분배주의자였는데 임금적 요소 그 자체를 비판했지 그러나 반대로 개인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재산(웃, 차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했어 몇몇 이들은 '생산량'의 대한 문제를 말할텐데 크로포트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나칠정도지만 과학의 대한 낙관주의를 펼치며 '과학이 발달한다면 우리가 개간하지 못했던 황무지들도 개간하고 할 것이므로 이런 생산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도 했지

## 비대한 조직을 거부하다.

토지가 거주민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노동이 즐거움이나 최소의 노력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직이 필요하다. 모두가 임의로, 스스로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타인이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협력하거나 집단적 작업에 포괄되는 것 없이 노동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의 끝에서 우리는 수많은 낱알과 더 많은 기계와 신발과 아티초크가 생산되는 것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신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짓자.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합의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힘으로, 소수에 의한 강압으로 이루어져 이를 강요한 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착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자유롭고 의지적인 협동이 아니키다.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한 강요된 협력은 권위주의 체제다.

### -아나키즘에서의 개인주의(말라테스타)

이들은 지나친 조직의 비대화를 거부했어. 이들은 노동조합처럼 '상설 조직'은 결국 관료화되고 딱딱해지고 '불세비키'처럼 된다고 비판하고 어떠한 조직, 단체는 '언제든지 만들고 해체될 수 있어야한다.'라고 주장했지 (물론 그렇다고 조직자체가 없어야한다고 안했어. 사람도 결국은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연대가 필요한 단체, 조직은 있어야 했으니까) 분배도 개간도 그 외 어떠한 것도 단체, 조직은 그때 그때 만들고 그때 그때 해체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지

## 자유롭게 결사하고 연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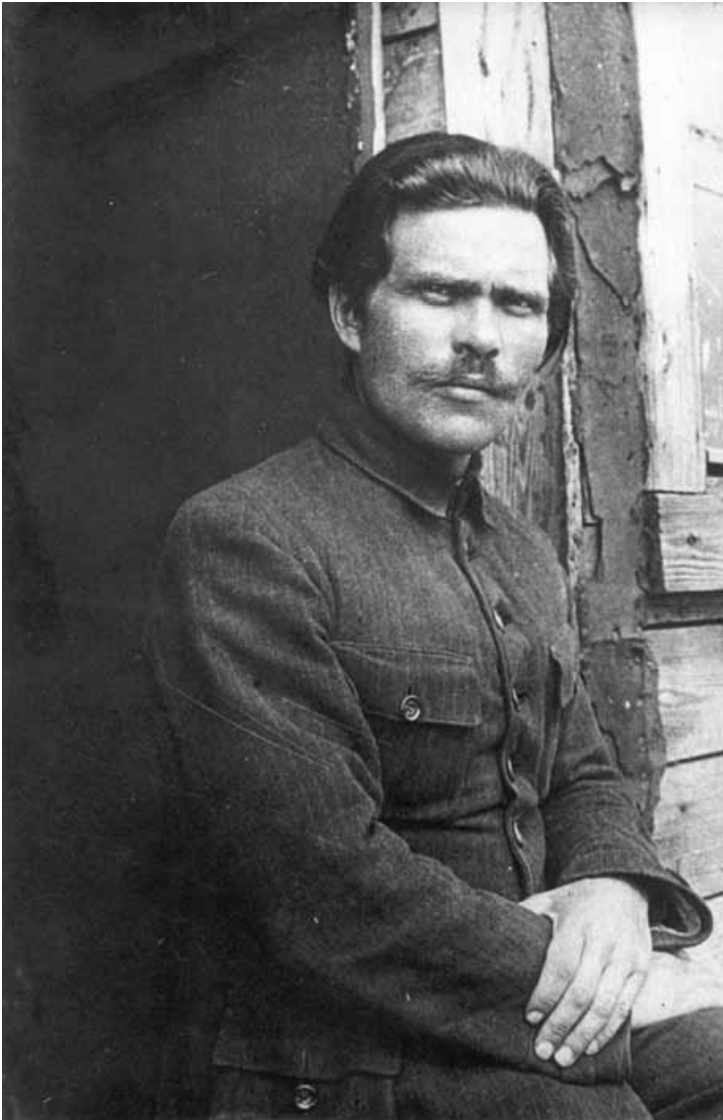
우린 공권력을 제거하길 원한다. 우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자유로운 협약을 바라며, 이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가 바람직한 사회의 운영에 동참할 때 나타날 것이다. 우린 아나키를 바란다.

## -독재도 민주제도 아닌 아나키(말라테스타)

또한 이들은 확고한 코원주의자였기에 더더욱 코원의 역할을 강조했어 정확히는 '코원에서의 자유의 역할'을 말이야.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그렇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며 코원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남들과 결사하는 식을 말이야. 코원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사회상이었지

하지만 보이다싶이 이들은 결국 '조직성'을 갖추지 못했어. 말라테스타는 개인적인 소수의 단체를 끌고 은행등을 테러하면서 혁명을 진행하려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지

그런 상황에서 '아나키즘의 조직성'을 갖추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흐노야



마흐노는 직접 러시아 내전기 우크라이나에서 자유지구라는 '아나키즘 공동체'를 이끌면서 활동했었어 꽤나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석권할 정도로 세가 컸지만 내전을 거의 정리한 볼셰비키가 뒤통수를 까면서 마흐노는 루마니아를 거쳐 프랑스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버렸지 마흐노는 그런 상황에서 '아나키즘이 왜 이렇게 세가 약한가?'의 대한 의문점에 대해 '조직성'을 문제로 들었고 그는 파리에서 다른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자유지의주의적 코원주의자들의 조직적 강령'을 발표하며 아나키즘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어

### 하나의 강령아래 연합하자!

우리는 다른 투사들에게 희망을 둔다. 아나키스트 운동의 비극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고통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나키즘에 신실하여 고통스럽게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나아가 우리는 러시아 혁명의 숨결로 태어나, 건설적 문제들의 태동기에 위치해있는 청년 아나키스트들은 반드시 아나키즘의 긍정적이고 조직적인 원칙들이 실현되는 것을 요구하리라는 것에 희망을 둔다.

우리는 모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러시아 아나키스트 조직들 모두가, 고립된 투사들 모두가, 공통의 조직 강령에 근거하여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강령이 혁명의 척추가 되게 하자! 이 강령이 러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의 투사들의 집결지가 되게 하자! 이 강령이 아나키스트 총동맹의 근간을 구성하게 하자!

세계 노동자의 사회 혁명 만세!

## -디엘로 트루다(마호노가 파리가서 만든 단체)의 자유의지주의적 코원주의자의 조직적 강령

마호노의 주장은 매우 파격적이었어. 바로 '하나의 강령'이라는 존재를 말했으니까. 마호노는 아나키즘 운동은 하나의 아나키즘 강령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봤고 그렇거 반-아나키즘세력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아나키즘이 '존립'할 수 있다고 봤지 물론 말라테스타와 같은 코원주의자들에게 '그 것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자칫하면 독재로 변할 수 있다'라며 말하기도 하였고(마호노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둘이 '강령에 대하여'라는 편지를 주고받아.) 마호노와 함께 아나키즘 운동을 했던 볼린은 '볼셰비즘과 단 한발짝 차이 아나키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

하나 마호노는 그런 비판 속에서 '너희들의 비조직적 아나키즘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만 싸우고 아나키즘 강령에 연합하여 아나키즘의 오랜 분열적 문제를 끝내고 사회혁명에 다 같이 투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했어 물론 그렇다고 마호노가 코원을 싸그리 부수자느니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코원들의 직접민주제도 존치하고 그들의 노동조합도 존치하고 그들의 자발적 연합도 존치하지만 아나키즘 운동을 이끌고 존립하는데 필요한 강령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따라야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지

1. 데니킨(의용)군이 선포한 모든 법령은 철폐한다. 노동자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공산당 권위의 법령 또한 마찬가지로 철폐한다.

주의 : 공산당의 법령 중 무엇이 노동자들에게 해로운지는 마을, 공장, 상점 등의 총회에서 노동자 스스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신사제급, 교회 등 노동자의 적들에 대한 토지와 그 가축, 장비 등은 스스로의 노동으로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 기관은 조직된 방식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농민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이익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당한 노동대중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장, 작업장, 광산 등 모든 생산수단은 노동계급이 총체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이 소유는 노동조합이 모든 사업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생산을 재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체의 산업을 하나의 단결한 조직으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모든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이 노동자와 농민의 자유 소비에트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 소비에트는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 단체의 대표자들은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에 참석할 수 없다. 이들이 소비에트에 참여한다면 소비에트는 결국 당 간부의 소비에트가 될 것이고, 소비에트 질서의 붕괴를 낳을 것이다.

5. 체카, 당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하게 폭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규율적인 기구의 존재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6. 발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자유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혁명적이다.

7. 지금 이 순간부터 국가자경단, 경찰, 군대를 철폐한다. 그들의 자리는 인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기방위부대가 차지할 것이다. 자기방위는 오직 노동자와 농민에 의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8.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에트, 노동자와 농민의 자기방위부대, 그리고 모든 개별적 노동자 농민들은 부르주아지나 장교들이 행해 온 반혁명적 징후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약탈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반혁명적 행동이나 약탈이 적발된 자는 그 즉시 총살한다.

9. 소련과 우크라이나 화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폐를 통한 지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혁명재판에 소환한다.

10.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이를 접수할 때까지, 상품과 생산물의 교환은 자유롭게 유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상품의 교환은 생산자들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11. 이 선언문을 나누어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은 반혁명분자라 취급한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농부와 노동자들에게.(마호노가 우크라이나 자유지구 건설 때 뿌렸던 강령)

아나키스트들이여 노동자들에게 침투하라!

특히 계급적 비타협성에 대해, 반민주주의에 대해, 아나키즘적 코원주의의 반국가주의에 대해 대중에 대한 자유의지주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대중적 아나키스트 조직 역시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작업이 필요하다. 한 편으로는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들을 자유의지주의적 코원주의의 이론적 기반에 따라 묶어낼 필요가 있다.(구체적 자유의지주의적 코원주의 조직 건설) 다른 한 편으로는,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들을 소비와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반에 따라 다시 묶어낼 필요가 있다.(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의 생산 조직, 그리고 노동자와 자유농민의 협동조직) 노동자와 농민 계급이 생산과 소비에 기반하여 조직되고, 이 조직에 혁명적 아나키스트가 침투할 때, 이 조직은 사회 혁명의 가장 강한 지점이 될 것이다.

-자유의지주의적 코원주의자들의 조직적 강령

또한 마호노는 강령과 함께 '아나키스트들의 대중침투'를 주장했어 아니 더 나아가서 노동자 조직(노조,농민조합등)에 아나키스트들이 침투해 노동자들을 '아나키스트 강령'에 따라 지도해야된다고 주장했지 그렇게 노동자 조직을 아나키즘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이런 강령주의의 등장은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 매우 큰 화제가 되었어 스페인의 CNT(전국노동조합)에서는 강령주의를 적극 받아들여 FAI(이베리아 아나키스트 연합)라는 산하기관을 두어 아나키즘 대중지도를 추구함과 동시에 강령주의에 입각한 아나키즘 노동조합을 이끌었고 내전기에 활약하게 됨

하지만 이런 유럽의 아나키즘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색다른 아나키즘이 꽃피어 바로 '미국식' 아나코 생디칼리즘이야.(아나코 생디칼리즘 자체는 전부터 있었어. 크로프트킨과 같은 사람이 생디칼리즘적 방법론을 쓰기도 했고 CNT에서는 아예 아나코 생디칼리즘이 목표로 있었지. 현재와서는 아나코 코원주의와 아나코 생디칼리즘은 구분이 힘들정도로 동화되어 있어서 '미국식'이라는 표현을 썼어) 미국또한 아나키즘 운동의 크나큰 장을 주도했고 특히 I.W.W(세계산업노동자연합)이 이끌던 아나코 생디칼리즘 운동은 미국을 크게 강타하며 '노동절'의 기원이 된 헤이마켓 사건등을 주도하기도 하였지. 그럼 이들은 뭘 주장했을까?



IWW에서 자주 쓰이는 심볼. 맨 왼쪽은 '총파업'고양이 중앙은 IWW 심볼

파업! 파업! 총파업!

산별노조 구조는 노동자들을 그 방향으로 단결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기에 만들어졌다. 누구와 함께 최고의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는가? 누구와 함께 파업하야 하는가? 이러한 실질적 질문들은 모든 산별노조 내부의 노동자 그룹들 안에서 결정될 수 있다. 유전의 주방노동자도, 원양어선의 조리담당선원도, 공장 구내식당의 조리사도 레스토랑의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정유노동자, 선원,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되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교섭할 수 있을 것이다.

분배에 있어, 이러한 상식적 규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일 기업의 생산물 분배에만 관여할 때,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조직방법은 생산 과정으로 결합한 노동자들과 같은 조직을 꾸리는 것이다. 주유소 노동자들이 유전과 정유산업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을 만든다면 더욱 나은 교섭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유전과 정유산업 노동자들은 생산물의 판매를 무기로, 주유소 노동자들은 상품의 공급을 무기로 교섭할 수 있다. 원유 수송선의 선원들은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직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석유노동자 파업의 “뜨거운 기름”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원 빅 유니온(IWW)

당연히 생디칼리즘이었던 이들은 총파업을 주장했어 그 것도 노동자들의 투쟁수단의 대표로써 말이야. 물론 아나코 생디자체가 총파업을 주장하긴 하는데 이들은 그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급격한 총파업을 주장했어 노동자들이 가지는 '무기이자 대항수단'이었지 (이를 생디칼리즘에선 노동자 직접행동이라고 말해)

## 거대 단일 노동조합(원 빅 유니온)과 산별노동조합

산별노조 분할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결시키는 도구로 여겨져야 한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의 모든 조합원들은 소속 산별의 활동에 대한 발언권과 직접투표권을 가진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의 직가입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은 직업을 변경하는 것에 따라 산별노조를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다른 산별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조합원들이 당연히게 되는 조직은 업종지부, 혹은 사업장지부가 된다. 이 지부 조직들은 조합원들이 일하는 사업장, 혹은 업종을 조직하며, 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순수한 현안문제를 다룬다. 각 산별노조들은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활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본부와 사업장 지부들은 연맹의 규약과 산별노조의 규정과 충돌하는 규칙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은 산별노조의 연맹체, 혹은 총회가 아니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은 노동자 계급의 원 빅 유니온이다. 현대 산업의 상호유관성 속에서 이 형태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 빅 유니온의 구조는 현대 생산과정의 복잡성에 따라 어려워진 노동자의 구획화를 회피할 수 있게끔 한다. 이를테면, 철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해수에서 산화마그네슘을 짜내고, 산화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을 만드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전기분해하여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산별노조의 연맹체의 경우, 이들을 어느 산별노조에 편제하여야 하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원 빅 유니온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해당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산별로 조직하면 될 뿐이다. 혹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라디오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금속, 기계노동자들과 사무노동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라디오 노동자들은 가구노동자로서 조직될 것이다.

-원 빅 유니온

아마 다른 아나코생디 조직과 차별화되는 미국식 아나코 생디칼리즘의 가장 큰 점일꺼야 바로 원 빅 유니온이지. 원 빅 유니온은 간단해 말 그대로 '모든 직종, 산업'의 '노동조합'이야. 그리고 그 노동조합 아래에 여러가지 '산별노동조합'이 있고 '직장 민주주의'로 구성되는 '산별 노동조합'을 통해서 산업을 굴리는 식이야 이들은 산별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연대감을 끌어들이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장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 '조합원 자격'은 '작업장'을 옮기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말했고. (왜냐면 어용노조 즉 기업 산하 노조는 기업을 옮기면 당연히 기업에서 나가는 거니 자격또한 사라지지만 산별노조는 말 그대로 '산업별'노조라서 어디 작업장을 가든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거든.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거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나키즘이 무엇을 주장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어. 더 많은 아나키즘 정보는 아래 아나키스트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걸 추천해 좋은 정보들이 많을꺼야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atest/1>